연구소 소식

육아정책연구소 제7대 황옥경 소장 선임 및 취임식 개최

육아정책연구소 신임(제7대) 소장에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가 선임됐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5월 9일 제357차 이사회를 열어 황옥경 교수를 제7대 육아정책연구소장으로 선임·의결했으며 취임식은 5월 27일에 진행되었다. 황옥경 신임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연구소를 영유아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와 영유아가 온전한 인격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 미래 우리나라 교육과 보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도약·발전시키며, 우리사회에서 육아 지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해야 하는 소명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영유아가 유망한 미래로 나아가도록 지원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육아정책 연구'라는 비전 아래 지식 확장과 정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 플랫폼을 공고히 구축하고, 국내외 정책 의제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며, 혁신친화 경영으로 기관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육아정책연구소 임직원에게는 "영유아에 대한 과학적 발견과 인격체로서의 영유아에 대한 이해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 재설계를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연구기관의 연구원과 직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모든 직원이 원(one)팀이 되어 최고의 연구와 사업을 생산하는 연구소가 되도록 뜻과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4년 6월 3일(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한어총) 회장단을 초청하여 연구소와 향후 교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한어총 김경숙 회장과 국공립분과 위원장, 사회복지법인분과 위원장, 법인·단체등분과 위원장, 직장분과 위원장, 가정분과 위원장, 시·도연합회 협의회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8인과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과 회장단은 유보통합을 앞둔 현시점에 당면한 정책과제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양측은 출생률을 견인할 방안으로 어린이집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증거기반 자료의 축적과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어총은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 결과가 미치는 현장에서의 파급효과를 염두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향후 국가 정책 연구에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하기로 하였다. 연구소도 이론과 학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하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고 연구에 임할 것을 약속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안상훈 의원, 영유아 육아정책 협의 및 이행전략 회의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4년 6월 10일(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前대통령실 사회수석이자 제22대 국회의원인 안상훈 의원과 공동으로 "영유아 육아정책 협의 및 이행전략"을 주제로 관련 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에는 안상훈 의원과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김천홍 국장,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정영훈 단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강민규 국장,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 임영미 국장,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최성지 국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국 이선영 국장,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육아정책연구소는 황옥경 소장과 최은영 기획조정본부장 및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황옥경 소장은 "종합적 육아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는 설립목적에 맞춰 모든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 정부, 저희 연구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공통된 미션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논의에서는 각 부처 실무진들이 함께 현 정부의 영유아·육아 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과 공조 방안에 대해 모색했으며,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본부장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미래 영유아·육아정책의 추진 방향'을 주제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영유아 교육보육 정책과 각 정책분야별 주요 이슈, 그리고 추진방향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다.

각 부처와 위원회는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육아정책연구소 역할과 관련 과제를 제안하였고,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4년 6월 14일(금) 육아정책연구소에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가연) 회장 및 임원단을 초청하여 연구소와 향후 교류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본 간담회에는 한가연 조미연 회장과 서금이 수석부회장, 신경옥 부회장 및 전남이사, 김민정 서울이사, 정연순 감사 5인과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이 간담회에서 양측은 유보통합을 앞둔 현시점에 당면한 정책과제, 저출생으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영유아 수 감소로 발생하는 어린이집 폐원 문제와 운영의 어려움, 서비스 질적 수준 담보 방안 필요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변화된 인구 환경을 고려한 정책 재설계 필요성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가정어린이집의 역할,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 및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마지막으로 유보통합이 “질 좋은 보육,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서로 공감하고, 변화될 환경에도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 오픈데이 운영

육아정책연구소는 2024년 6월 18일(화) 연구소 오픈데이를 운영하였다. 이번 오픈데이는 인천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유아교원의 유아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권미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연구소 및 주요 연구사업을 소개하였고, 송신영 대외홍보팀장이 연구소가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및 정책연구 자료 이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4년도 기본·일반과제 중간보고 워크숍 개최

육아정책연구소는 6월 18일(화)~20일(목), 6월 27일(목)의 나흘에 걸쳐 16개 기본·일반과제에 대한 중간보고 워크숍을 개최했다. 본 워크숍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중간 점검하는 자리로 황옥경 소장을 비롯한 원내 전체 연구직원과 과제별 담당 부처 공무원,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 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서 수월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